춘천의 민속문화의 현황과 전망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허준구 (강원문화예술연구소장)

Chapter

I

Ⅰ.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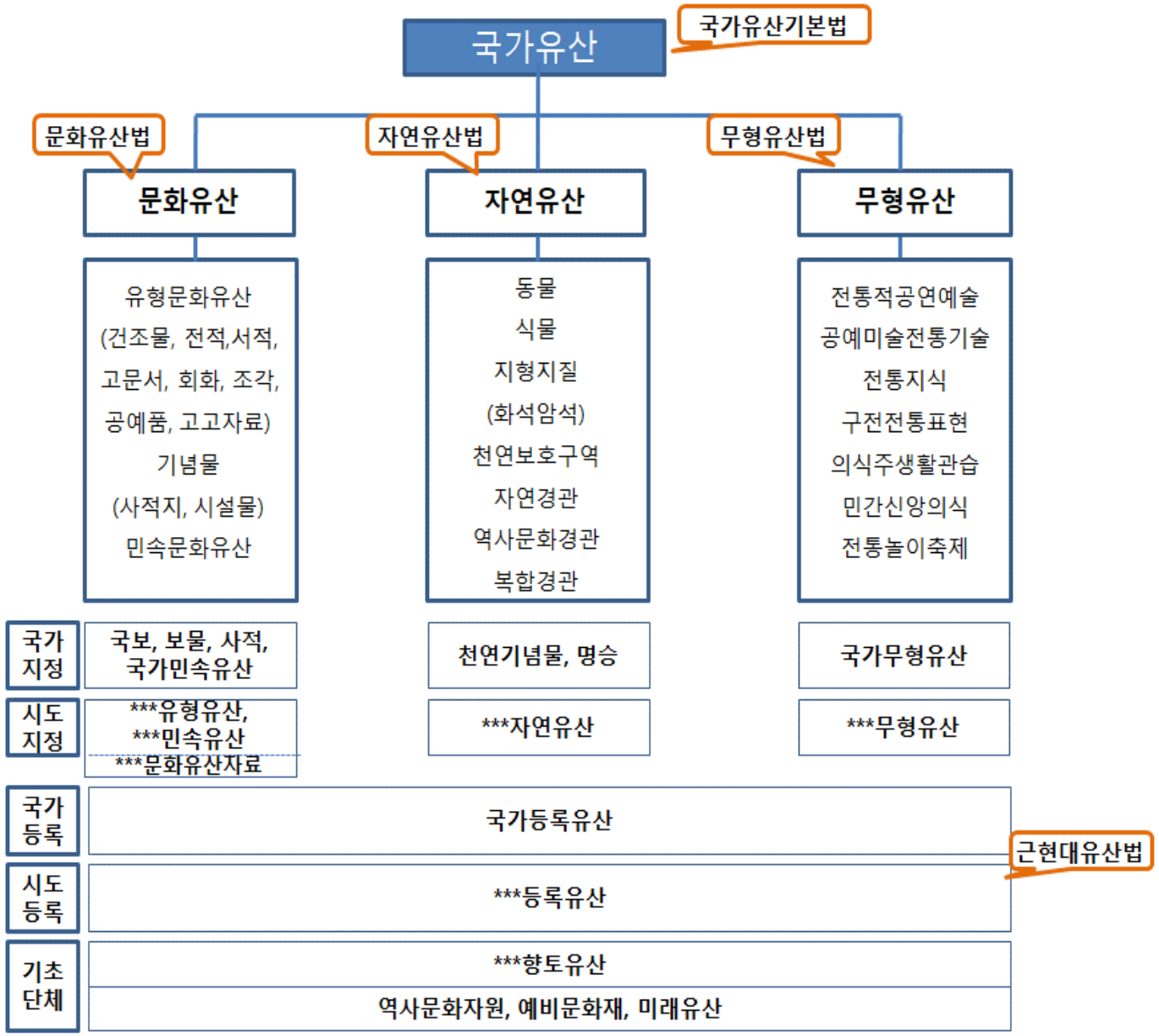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배경

- 1960년대 마련된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
- 2016년 유네스코의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 2023년 4월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 국가적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에서 유산(遺産)으로의 개념이 확장
- 문화유산으로의 개념 확장으로 기존 문화재보다는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해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해짐
- 지역 주민 스스로 유산의 가치를 발굴해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유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음

연구의 배경

- 기존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국가 유산 체계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문화유산의 개념을 반영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 기존에 분야별로 단편적으로 정리한 자료들은 있지만 현재의 무형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정리된 자료가 없는 형편으로 향후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계적으로 무형유산 정리가 필요



연구의 목적

- 춘천시 유형문화유산은 어느 정도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무형유산에 있어서는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현황 파악이 거의 없는 형편임. 이에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무형유산의 개념을 반영하여 춘천지역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목록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함
- 기존에 나온 보고서와 연구자료, 연관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체계적 틀로 정리해냄으로써 향후 무형유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함
- 춘천지역의 무형유산 목록화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국가 유산 보호정책의 방향을 담은 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무형유산으로서의 미래 가치를 찾고자 함

연구의 범위

연구지역

- 춘천지역

연구의 범위 : 무형유산법 범주를 기준으로 목록화 현황작성과 무형유산 미래 가치 획정

- 전통적 공연 · 예술 / 공예 ·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 한의약,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 무예
- 변화하는 문화유산 개념을 반영한 춘천시 무형유산 미래 가치 획정

Chapter

II

II. 연구개요

1. 무형유산 목록화 선정준거와 참고자료
2. 각 분야별 현황과 실태
3.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무형문화유산 선정 준거

역사성

- 오래전부터 춘천인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어 전승되는 것
- 역사적 문헌이나 구전 기록이 있는 것
- 단절되었지만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는 것

현재성

- 실제 세대 간 전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
- 발굴 복원된 유산이라도 현재적 전승이 확인되는 것
- 전승 단절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고 복원 가치가 있는 것

지역성

- 전승 지역의 인문 자연 환경적 요인이 농후한 것
- 지역적 특징과 대표성이 인정되는 것

시의성

- 전승과 단절의 우려가 있어, 유산의 보호가 시급한 것

미래성

- 현재적 기능과 가치가 농후한 것
- 미래 전승이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닌 것

현황 작성과 실태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 개별 분야별로 정리된 기존보고서 및 연구자료와 관련 홈페이지 등 각각의 분야의 목록화를 위한 관련 자료와 사이트 등을 검토

- 춘천문화원에서 2019년 발간된 『춘천문화』를 중심으로 정리

- 상대적으로 조사가 미흡한 농경어로지식, 공예기술, 의식주 등의 분야는 기존 자료의 검토와 함께 관련 사이트 등의 자료를 찾아서 보완

구분	내용
보고서	- 가정리 의병마을(2012) - 강원의 민요(2001) - 강원의 농산촌마을, 동내면 사암리(2015) - 강원인의 일생의례(2005) - 강원전통문화총서(1997) - 북산면 사람들(2010) - 산수마을 사람들(2023) - 소양강댐 수몰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 물 안의 기억과 풍경(2022) - 아들낳은 이야기(2004) - 전통지식모읍집 : 생산이용기술(1997) - 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4) - 춘천 마을농악 학술조사 연구용역 보고서(2020) - 춘천 백년사(1996) - 춘천 인제의 민속(1989) - 춘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5, 민속문화(2019) - 춘천 지명유래집(신북, 동내, 동면, 신동, 남산, 동산)(2012~2023) - 한국 감자 재래종의 역사적 고찰(2003) -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 어로 분야 현장조사보고서(2019) - 한국생업기술사전, 상공업 2(2002) - 한국의 가정신앙(2006) - 한국인의 일생의례(2010)
홈페이지	- 강원도농업기술원 - 이치피디아(ICHPEDIA) - 한국민족대백과사전 - 한국전통지식포탈

구전 전통 및 표현
전통적 공연예술 및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구전적 전통 표현은 선행 조사가 비교적 많음

- 민요, 설화, 구비문학은 비교적 조사가 잘 이루어져 있음. 민요는 농업노동요 중심으로 지역색이 보이는 민요 채록이 있으며 설화는 춘천 지역의 지명과 역사와 어우러지는 전설 중심으로 조사되어 있음
- 구비문학 현장은 빠르게 소멸되고 있으나 선행 조사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춘천 지역의 정체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전통적 공연, 축제, 놀이, 무예, 기예 등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필요함

- 이 분야는 기본적으로 조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음. 현재 전통 공연예술 분야로는 두가지를 꼽을 수가 있음. 첫째는 농악이고 둘째는 기존에 민속예술경연대회(후에 민속예술축제로 변경)에 출전한 전통적 놀이와 축제 등임
-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한 작품들은 민속놀이이면서 전통적 공연 예술적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 과거 참여했던 <재궁동 산제 거북놀이>, <춘천 차전놀이>, <봉의산 축성놀이>, <석파령 주막놀이>, <신용연 용신제> 등이 여기에 속함
- 이러한 작품들의 원천자료는 민속놀이와 민속의례 등으로 원천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또한 이외에 다른 놀이와 공연 예술 등이 있는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함

한의약,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무형유산으로서의 농경어로 전통지식의 중요성 증가

- 농경어로 전승지식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조명되지 못하다가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무형문화재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무형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농경어로전승지식은 그동안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계적 조사나 학문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특히 농경어로 지식은 전통사회를 유지하며 현대의 산업화 시대의 밑거름이 된 생업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첨단 산업화에 밀려 그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임

전통농경어로 지식이 갖는 미래적 가치

- 전통농경어로 지식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했던 농경시스템, 부족한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 단위의 자원동원방식 등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치해내는 효율적인 지식시스템

춘천의 농경어로지식 및 공예기술에 대한 자원발굴 필요

- 현재 농경어로지식 및 공예기술에 대한 조사가 거의 시행되지 않은 상황.
- 전체적으로 일부 마을에 대한 농업, 어업, 상업 등 생업 경제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없고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농경시스템과 자원동원방식 등 미래 전승 가치를 발굴하지 못한 상황
- 무형유산으로서의 농경어로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농경어로지식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춘천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에 대한 조사가 거의 없음

- 공예 기술에 대한 부분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관리되어 오던 분야로 국가무형문화재 7개 범주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공예기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로 지정되어 있음
-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춘천필장이 춘천의 유일한 무형유산임. 공예기술이 비교적 많이 지정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춘천의 공예 미술 등의 전통 기술에 관한 기존 연구나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임

춘천의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통 기술 발굴 필요

- 춘천의 경우 조선시대 춘천토(春川土)를 배를 이용하여 분원에 운반하여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단편적 기록 외에는 춘천토를 활용하여 옹기를 제작하는 기술, 춘천토를 분별하는 기술 등 춘천토에 관한 세부적인 전통 기술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춘천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나 광물 등을 이용한 가공 기술이나 선별 기술 등 지역적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발굴이 필요함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의식주 부문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자료 비중이 적음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한 조사연구는 국가 주도로 진행된 조사연구와 강원도 차원의 민속 조사 연구 등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지역별 대표 민속에 대한 소개에 비해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자료는 비중이 적음
- 『한국민속종합보고서-강원도편』(1977), 『한국민속종합보고서-향토음식편』(1984), 『한국민속종합보고서-주생활편』(1985), 『한국민속종합보고서-의생활편』(1986), 『강원도 세시풍속』(2001), 『강원의 민속문화』(2014), 『강원민속문화의 해, 김두식,윤정숙 부부의 살림살이』(2014), 『강원의 농산촌마을』(2015), 『자연 그대로 강원도 음식 31선』(2015)
- 의식주 등 생활관습이나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식문화와 관련해서는 음식문화의 관광자원화라는 관점에서 종가음식, 향토음식, 지역 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되었음

의식주와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 필요

- 의식주 등 생활관습은 어느 지역에나 비슷하게 남아 있고, 그 원형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움
-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장 1조에서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 공간까지도 조사대상 범주에 넣어 의생활, 주생활에 대한 독특한 사연과 구체적인 문화 및 경험담이 드러나는 사례 발굴 조사가 필요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세시풍속 부문

지역 고유의 특성 및 타 지역과의 변별점을 찾기 어려움

- 세시풍속과 관련한 국가 및 도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연구와 강원도 민속학자들에 의해 수행한 조사 연구가 있었지만 세시풍속에 대한 지역의 고유성 및 다른 지역과 변별점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적음
- 『강원도 세시풍속』(2001), 『강원의 민속문화』(2014), 『춘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문화 아카이브 5 민속문화』(2019), 『강원도사』(2018), 『춘주의 역사와 세시풍속』(1991), 「춘천의 세시풍속」(2000), 「『譯註 海觀自集』에 나타난 춘천의 세시풍속」(2007)

다각적 측면에서의 전수조사 필요

- 세시풍속은 농경 생활의 주기 및 그것과 결부된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명절 풍속, 생산 의례, 절기에 따른 풍속과 음식, 속신, 놀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각적 특면에서의 조사 연구가 필요한 주제임
- 도시화, 산섭화 및 코로나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화하거나 소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역사성, 지역성, 공간성 등의 복합적 문화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이를 기분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적 특색을 발굴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민간신앙

민간신앙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

- 각종 지리지와 개인 문집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민간신앙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기록에 의하면 춘천에서는 거의 마을마다 한두 개의 마을 신앙이 있었으며 가정에서도 성주신앙 등 가정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음
-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민간신앙은 새마을운동과 외래종교의 영향으로 많이 사라졌음.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 마을신앙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음

춘천의 고유성과 특성을 지닌 마을신앙과 가정신앙

- 가정신앙으로는 기자신앙, 귀신가두기, 성주신앙, 삼신신앙, 안택고사, 풍수신앙, 무속신앙 등이 있으며 마을신앙으로는 강촌의 말골서낭제, 봉명리 서낭제와 거리제, 가정리 재궁동 산제, 추곡약수제, 봉의산순의비제, 증리 금병산 산신제, 방하리 장승제, 조양리 밭치리 거리제, 내평리 수살제, 물로리 기우제, 와룡리 미륵제, 사암리 우물제 등이 있음
- 이들 신앙은 모두 춘천의 고유성과 마을의 특성, 변별성을 함유하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님

춘천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례 : 밭치리 거리제, 우두산 솟을뫼, 물로리 기우제

- 밭치리의 거리제는 몇백년의 전승역사와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을신앙으로 서낭제와 장승제, 솟대제와 돌탑제를 모두 아우르는 제의로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출전, 장승춤 공연 등으로 방송과 신문 등 여러 매체에 소개
- 우두산의 솟을뫼는 맥국시대의 천제단과 관련있는 신앙으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
- 물로리 한천자 무덤의 기우제는 옛 문헌에서도 나오고 2012년에도 행한 춘천에서 가장 큰 기우제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의례[의식]

기존 자료의 신빙성 부족 : 자료의 출처가 불명확

- 춘천시 의례[의식] 에 관해 집대성된 것은 『춘주지』(1984), 『춘천백년사』(1996), 『강원문화총서』(1997) 등의 기록이 있으나 제보자를 표기하지 않아 현지답사를 통해 집필되었는지 알 수 없음

현전하는 의례가 거의 없고 간소화됨

- 제보자 출처를 확실하게 밝힌 의례 기록은 『강원인의 일생의례』(2004), 『북산면사람들』(2010), 『춘천시의 일생의례』(2012), 『가정리 의병마을』(2011), 『민속문화』(2019), 『산수마을사람들』(2023) 등이 있음. 이들 조사에서는 각 마을의 일생의례를 제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에서 모두 조사
- 시대가 변하면서 의식의 형태도 변할 뿐더러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 때문에 현전하는 의례는 서양식 또는 간소화된 의례로 무형문화로 지정하여 계승할 의례가 대부분 없어져서 빈약한 상황임

의례문화로의 새로운 가능성

- 옛 의례문화가 다시 재현 또는 재연되는 경우가 있음. 가령 기자풍속, 태아예지법, 순산법, 혼인례, 상장례, 상엿소리나 회다지소리(민요와 부합), 제례 등이 있음. 이 가운데 춘천의 고유성과 특성을 띠면서 다른 지역과 변별력이 강한 항목을 선정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드러내어야 함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춘천의 무속신앙과 소양강문화제 용연제 굿

- 춘천은 동해안과 남해안 등에서 성행하는 세습무와는 달리 강신무 형태의 굿이 행해짐. 이 굿이 소양강 문화제 때 '용연제'로 연행되는데 이는 춘천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여 굿판을 이룸. 조선조 지리지부터 최근 2004년에 조사된 자료에서 그 특성이 드러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밭치리 서낭제와 거리제

- 이 동제는 <전치곡>이라는 신화를 가진 춘천 최고의 무형문화. 신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서낭화 화상, 장승과 소나무가 조화로운 장승숲, 밭치리의 특성을 담은 장승, 따오기 형태의 특별한 솟대, 돌탑, 거리제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랫말, 강원도민속경연대회 출품이력, 전국 유일의 주민이 함께하는 장승춤 공연, 동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각종 연구 논문, 400년 이상의 역사, 정확한 이정 표기 등이 있었음
- 강릉 단오제보다 더 훌륭한 자원. 비록 장소를 옮겨 연행하고 있지만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 만큼 그 가치가 크고 보전해야 함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가리산 한천자 무덤과 기우제

-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는 각종 전설과 신화, 서낭제, 산신제, 기우제, 남근신앙, 무속신앙, 풍수신앙, 개인 치성 등으로 구현하는 춘천만의 특성을 갖는 민속의 보고(寶庫)임. 이 가운데 물로리를 민속 마을로 자리하게 한 것은 한천자 무덤
- 북산면 물로리 가리산과 한천자 무덤, 기우제와 그에 얽힌 신화와 전설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복합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음. 이를 잘 보전하여 춘천시 무형문화재로 키울 가치가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가정리 재궁동 산제와 거북놀이와 거리제

- 가정리 재궁동 산제와 거북몰이는 재궁동의 산신제와 거리제와 산신제를 놀이로 만들어 강원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한 민속작품. 재궁동 산제 거북놀이는 재궁동 산제의 과정을 마당놀이로 만들어서 출품하였는데, 산제와 따르는 마을굿과 함께 전통적인 마을민속을 볼 수 있음. 산제와 거북몰이 후 가정3리 입구에 와서 거리제를 지냄
- 재궁동 산제놀이에는 항와 류중악 선생이 쓴 <재궁동민사축문>이 남아 있는 점이 특이하며 무형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상당하여 지원하여 보전이 필요함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혼인의례 때 금기와 놀이

- 함팔기, 잿봉치기, 과방단자, 부정방지(주당실, 솥뚜껑밟기), 신랑상잡기, 신방지키기, 신랑다루기 등이 있음. 이를 연계하여 마당놀이 또는 연극 형태로 꾸며서 연행방식을 취하는데 전통의 새로운 계승 형태로 볼 수 있음
- 혼인례 때 행하는 금기와 놀이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생활 그리고 전통이 잘 드러나는데 무형유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음. 이는 비록 춘천만의 고유성이라 보기보다는 춘천에서 무형문화로 선점의 의미로 접근함이 필요함

자리걷이

- 후생점치기, 환토 등으로도 불림. 무당들이 영혼을 거두어 갈 때 자리걷이라 하는데 이는 죽은 이가 후생에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를 알아보는 전통적인 방법임. 자리걷이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일생의 과정이 전생, 현생, 후생이라는 윤회전생의 의식을 알 수 있는 형태임
- 우리의 전통적인 일생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가치를 대변하는 행위로 무형유산의 가치가 상당히 높음. 다만 현재 거의 행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이를 상례의 일반풍속과 연계하여 무형유산으로 키운다면 사람들의 사후 과정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긍정적 자세로 현실에 임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임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상문살, 상장례 금기

- 상문살은 아주 악한 주검의 귀것이 산 사람에게 씌워서 해를 끼치게 되므로 상가에 가지 못하는 사람과 매장(하관) 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상장례에 임했음. 상문살에 걸리면 죽든가 혼이 반쯤 나가거나 하여 애를 먹음. 그래서 상문살에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을 하게 됨
- 육갑으로 봐서 무슨 생은 위험하니 상가나 매장(하관) 현장에 가지말라고 함. 또 손에다가 왕(王)자나 황(皇)자를 붉은 글씨로 쓰거나 고추가루를 지니고 갔다가 집으로 올 때 버리고 오기도 함. 집에 와서는 화장실에 들러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 악귀를 떨쳐 버림
- 간혹 상문살에 걸리면 곧바로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거나 헛소리를 하거나 몸이 안 좋아서 춥다고 함
- 멍석을 말아놓고서 회다지를 하거나 굿을 해서 상문살을 떼어 버림
- 상문살은 상장례 풍속에 끼어있는 춘천 고유의 무형문화로 만들기에 좋은 유산임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겨리농경(소모는 소리)과 소짝

- 소를 이용한 겨리농경과 소짝 등의 농경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통 지식 농경방식임
- 겨리농경의 핵심 방식 중 하나인 소짝은 부족한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단위의 자원 동원방식을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치해내는 효율적인 전통지식임
- 강원도에서만 불리는 겨리 소모는 소리는 강원 지역의 지형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춘천감자(춘천재래, 자주감자) 재배와 저장 방법과 방식

- 춘천감자는 1970년대 이전까지 산간지를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었는데, 전분 함량이 높아 조리용으로 적합하며 토종식품화가 가능함
- 감자는 부패가 쉬운 특성상 감자를 보관하기 위한 저장방법이나 방식이 발달. 감자를 좀 더 오래 보관하여고 감자 전분을 추출하고자 감자를 썩히고 감자가루를 만들어내고, 그 감자가루를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은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전통 지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음
- 춘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토종 종자가 존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최근 춘천의 감자빵, 감자맥주 등 감자를 활용한 식품이 큰 사랑을 받고 있어 춘천 감자 재배 방법과 저장방식을 활용하여 춘천 재래종과 감자 활용 가공식품을 연계해 춘천 감자의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복숭아

- 불로장생의 상징 과일로 알려진 복숭아는 춘천의 대표적 특산물 중 하나이며, 조선시대부터 복숭아 주산지로 유명하였음. 1611년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실린 도문대작에는 조선 팔도의 명물 토산품과 별미음식을 기록하였는데 여기에 춘천은 황도의 주산지로 기록되어 있음. 여기에 강원대학교 후문 일대를 도화골이라 하였는데 이처럼 복숭아와 관련된 지명이 여럿 있음
- 춘천의 복숭아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기후조건으로 인해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춘천의 대표적인 복숭아 생산단지로 유명한 사암리에서는 복숭아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복숭아 재배의 오랜 역사성과 재배기술, 마을 축제를 연계하여 미래 무형문화유산으로 발굴 육성이 가능함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의병주

- 가양주는 예부터 전해져 오던 조상을 모시고 손님을 맞는 집안의 대표 술로, 명가명주(名家名酒)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국 각지 다양한 가양주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으나, 일제에 의해 끊어진 우리 고유의 대표적 전통문화
- 다행히 고유류씨 가문에서는 남면 가정리에 터를 잡으면서 400여 년간 대대로 빚어 온 가양주가 전통방식 그대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맛과 향이 뛰어나고 숙취가 없어 명주라 불릴만함
- 고흥류씨 가문은 의암 류인석 선생을 비롯한 일가가 모두 의병항쟁을 실천하였으며, 남면 가정리는 대표적인 항일정신의 고장으로 유명. 이러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의병주를 상품화하여 출시하고 있음
- 현재 전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주는 총 33개, 이중 국가무형문화유산 4개, 시도무형문화유산 29개이나, 도내에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주가 전무
-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가양주로 '의병주 ' 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의병주의 오랜 전통과 역사와 이야기를 보전할 필요가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춘천 아라리

- 아라리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불리는 전통소리. 특히 강원지역은 우리나라 아리랑의 시원인 아라리의 자생 지역. 춘천도 아라리를 불렀던 지역이고 고유한 지역의 아라리가 존재하므로 발굴하고 전승 필요.
- 의병아리랑과 춘천뗏목아리랑은 춘천지역 아리랑의 일종. 차상찬의 개벽에 노랫말이 소개되었고 제2회 소양제 때 재현되기도 하였음. 을미의병의 의병아리랑과 춘천뗏목아리랑 역시 발굴 재현하여 전승할 가치가 있음

춘천 전설

- 춘천지역의 전설 중 다음 세 가지의 전설은 춘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전설임. 청평사 전설은 청평사에 얽힌 다양한 지명과 전설로 춘천사람들의 항거 의식과 역사 인식을 알 수 있음
- 효자동과 거두리, 공지천과 퇴계동은 모두 지명과 인물이 함께 어우러진 전설. 이중 효자동 전설은 조선 후기 실재인물인 반희언이라는 효자와 연관이 있고 공지천은 퇴계 이황과 연관이 있음. 효자동 전설에서 실재 인물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거두리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시체의 목을 잘라와 어머니의 병환을 고쳤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더 매력있음. 공지천에 짚을 썰어 넣어 공지천 공지어를 만든 이가 퇴계라는 전설은 무린개와 연결되어 재미와 흥미를 더해주고 있음

주목해야 할 춘천시 무형유산

춘천 놀이

- 춘천지역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다양한 놀이. 줄다리기, 농악, 차전놀이, 석전(패싸움), 쥐불놀이 등의 세시놀이가 있었음. 춘천의 특색을 보여주는 몇 몇 놀이는 발굴, 계발되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소개
- 춘천 차전놀이, 우두산 소슬뫼 놀이, 효녀 우레놀이, 장절공 도이장가놀이, 춘천의 봉의산제, 봉의산 성쌓기놀이, 춘천 신용연 용신제, 춘천 수레싸움, 춘천 의병행렬, 석파령 주막놀이, 소양강 뗏목, 춘천 샘밭 장타령 등. 그런데 이 놀이 가운데 봉의산제, 용신제, 의병행렬 등은 놀이로 보기로 어려움

- 춘천 줄다리기는 일제강점기 때의 기록에 의하면 참여한 인파가 수천명으로 전평과 후평으로 나뉘어 진행. 세시풍속 일종인 정월대보름 기풍제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 풍습 중 하나. 현대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음

Chapter

III

III. 무형유산 목록화 현황

1. 구전전통 및 표현
2. 전통적 공연 예술
3.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4. 한의약,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5.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지식
6. 의식주 등 전통 생활 관습
7.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구전전통 및 표현 / 전통적 공연 예술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목록

민요(12개)

밭가는 소리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질꼬내기, 미나리, 상사소리, 방아소리, 단허리 소리)
운상하는 소리
묘다지는 소리
다리 뽑기하는 소리
숫자풀이하는 소리
아라리

설화(7개)

청평사 연기설화
가리산 한천자 전설
난리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장군
효자동과 거두리
공지천과 퇴계동
저절로 솟아오르는 묘

전통적 공연(1개)

춘천 마을 농악

전통적 놀이(8개)

춘천 외바퀴 수레싸움
춘천 줄다리기
재궁동 산제 거북놀이
봉의산 축성놀이
춘천 의병 놀이
신용연 용신제
소양강 뗏목
우두산 소슬뫼놀이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목록

농경지식(15개)	어로지식(1개)	공예기술(2개)
춘천감자(춘천재래, 자주감자) 재배 감자저장시스템 메밀 재배 옥수수 재배 및 활용 겨리농경 방식과 소짝 토종벌 키우기 참취와 삼지구엽초 층층이 논 은행나무 잎 친환경 멀칭 복숭아 재배 토마토 재배 연엽초 재배 및 건조 기술 영갈 누에(잠업기술 익모초	가래나무를 활용한 고기잡이	춘천토 옹기제작기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목록

막국수 만드는 모습

동면 가정집에서 올챙이국수를 만드는 모습

의식주(23개)

올챙이묵(올챙이 국수)	차례 지내기
의병주	입춘서 쓰기
막국수	오곡밥 먹기
닭갈비	부럼 깨물기와 귀밝이술
쏘가리회	섬만두 빚어먹기
쏘가리매운탕	달맞이하기
칡국수	달떡 먹기
약수산채백반	취떡(쑥떡) 빚어먹기
총떡	그네타기
모래무지찜	송편 빚기
강냉이술	차례 지내기
	팥죽 먹기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목록

민간신앙(56개)

용화산의 쌍아우
우두산의 솟을 뫼
천전리 고인돌과 성혈
대곡리 안택고사
사암리 가을떡
사암리 성주
오항리 산치성
사암리 어부슴
가정리 삼신상
복술이와 귀신가두기
가정2리 농바우 거리제
봉명1리 거리제
부귀리 거리제
사암2리 거리제
서상1리의 노제
월송1리 반송마을 거리제사
조양2리 밭치리 거리제
천전리 거리제
동내면 지내리 기우제
북산면 물로리 가리산 한총 기우제
의암리 신연강 백로주 기우제
조교2리 2반 산신제와 서낭제
조교2리 3반 산신제와 서낭제
추곡1리 산신제, 서낭제, 거리제
추곡2리 뇌골 산진제와 서낭제
오항리 무후제
강촌리 말골서낭당
거두1리 서낭제
봉명2리 서낭제와 거리치성
의암리 서낭당
산천리 서낭제
추곡2리 상추곡 서낭제
가정리 재궁동 산제
덕두원 1리 산제
물로2리 산신제
사암1리 산신제
상걸1,2리 대룡산 산신제
서면 덕두원리 산제당
안보1리 산제당
증리 금병산 산신당
증리 진병산 산신각
추곡리 추곡약수터 산신제
고성리 산천제사
방동1리 산천제사
월송1리 향천 마을 산천제사
청평2리 산막골 산제 또는 산천제
봉의산 순의비제례
내평리 수살제
동내면 사암리 굿당
춘천의 무속신앙
북산면 칠성신앙
관천리 풍수신앙
물로리 풍수신앙
서면 방동리 풍수신앙

밭치리 장승제

의례(22개)

기자풍속
태아예지법
순산법
태처리
백일과 돌잔치
관례에 계례
삼서육례
초례
혼인의례 때 금기와 놀이
사잣밥과 초혼
부고
부조
상례 일반
상장례놀이(상여놀이, 진사놀이)
자리걷이(후생점치기, 환토)
상문살, 상장례금기
상여소리, 회다지소리
가정리 제례
무후제
어버이날행사, 경로잔치
의암제
소양제

Chapter

IV

Ⅳ. 주요 무형유산 세부 현황

1. 물로리 기우제
2. 재궁동산제
3. 밭치리 서낭제와 거리제
4. 의병주
5. 춘천겨리농경

물로리 기우제

- 명칭 : 한천자 제사, 가리산 산신제, 물로리 서낭제, 한천자 기우제, 물로리 기우제
- 영역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소재지 : 북산면 물로리 가리산 한천자 무덤과 가리산 산신각
- 전승자 : 물로리 마을 사람, 운주사 스님
- 역사 : 춘천 지리지 곳곳에 한천자 무덤에 얽힌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어 산신제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12년과 2018년 기우제를 지냈음
- 문화요소 : 물로리는 한천자 전설로 인해 한천자 마을로 부름
- 사회문화적 가치 : 가리산 한천자 제사와 산신제는 물로리 사람을 사회 문화적으로 묶는 역할
- 현재 상황 : 물로리는 비정기적 행사이고, 가리산 산신제와 한천자 제사는 매년 3월 3일에 거행하고 있음
- 계승방식 : 은주사 스님이 마을제사를 함께하고 심마니가 벌초, 물로리는 각 반마다 서낭제와 산신제를 병행하고 있음

재궁동 산제

- 명칭 : 재궁동제, 재궁동 산제, 가정3리 쟁골산신제, 재궁동 산신제
- 영역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소재지 : 춘천 남면 가정2리 쟁골
- 전승자 : 가정3리를 주축으로 가정리 전체가 참여
- 역사 : 항와선생문집에 축문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됐음을 알 수 있음. 1986년 재궁동거북놀이로 마을대표 놀이로 승화
- 문화요소 : 거대한 당숲이 있는 곳에 산제당이 위치해 제당의 품격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사회문화적 가치 : 쟁골 산신제를 통해 공동체를 인식하는 계기를 만듦. 당숲이 잘 보전되어 있음
- 현재 상황 : 3년에 한번 제사를 지냄, 끊어졌던 거리제가 복원되었음
- 계승방식 : 마을단위로 계승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함

밭치리 서낭제와 거리제

- 명칭 : 밭치리 거리제, 밭치리 장승제
- 영역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소재지 : 동산면 조양2리 4반에서 전승되다 골프장 건설로 조양2리 본 마을로 옮겨 서낭제와 거리제를 지냄
- 전승자 : 조양리 사람들, 밭치리장승제보존회
- 역사 : 오래된 문헌으로부터 밭치리 서낭제와 거리제 시행 이야기가 <전치곡>이라는 제목으로 향유되어 왔음
- 문화요소 : 성황당, 당목, 장승숲 등 전통적 문화요소 다양하게 존재
- 사회문화적 가치 : 500년 넘는 시간 동안 전승돼 왔다는 자체가 가치가 있음
- 현재 상황 : 서낭당복원과 함께 매년 서낭당과 장승이 있는 거리에서 마을제의가 이루어짐
- 계승 방식 : 조양2리 전체가 중심이 되어 전승, 밭치리장승제보존회장을 중심으로 제의를 치름

의병주

- 명칭 : 의병주 고흥류씨 제주(祭酒)
- 영역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소재지 : 춘천 남면 가정리
- 전승자 : 서영숙, 의병제주보존회(고흥류씨 집안 며느리들)
- 역사 : 1967년 시어머니에게 전수를 받아 제사술로 직접 담금, 유인석 의병대장 순국 100주년 기념 의병주 상품화
- 문화요소 : 1년에 1,500병 정도가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음
- 사회문화적 가치 : 의병항쟁을 실천한 가문에서 대대로 빚어온 가양주로 명주라 불릴만함
- 현재 상황 : 의병제주보존회원들이 70세 이상 연로하여 향후 전승이 어려운 상황
- 계승 방식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승, 의병제주보존회를 통해 계승. 연로하여 향후 지속적 계승이 어려운 상황

춘천겨리농경(소모는 소리와 소짝)

- 명칭 : 춘천겨리농경(소모는 소리와 소짝)
- 영역 : 한의약, 농경어로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 소재지 : 동산면 봉명1리, 북산면 품걸리
- 전승자 : 김민영, 김호성
- 내용 : 춘천은 소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역사 발달. 겨리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소짝이라는 노동조직을 활용. 비탈이 심한 화전밭을 많이 경작.
- 문화요소 : 소모는 소리를 비롯하여 쟁기만드는 기술, 소짝을 맺는 방법 등 다양한 문화요소를 포함
- 사회문화적 가치 :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했던 전통지식
- 현재 상황 : 겨리농경이 약화되어 전승이 끊긴 상태
- 계승 방식 : 아직은 소모는소리와 방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복원이 가능성이 있음

Chapter

V

V. 춘천시 무형유산의 미래가치

1.문화유산 개념 이해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2.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3.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활용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변화와 이해

- 문화재 개념을 '국가유산'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 범주화하여 그 개념을 공적으로 확대
- 문화재는 재화적 성격이 강하였다면 유산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계승 형태의 문화로 그 범위를 확장

➡ 국가 유산 체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 문화유산의 개념을 반영한 제도 도입 필요

미래 유산 제도의 개념

-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제도권 관리 문화재를 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치가 있는 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보존 및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
-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주시, 부산시, 파주시 등이 미래유산제도 시행
- 미래유산은 지정 등록문화재와 비지정 유무형 유산 모두 해당. 미래유산보전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 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전 및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변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비지정 문화재로 시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유산 중에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개정으로 이를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향토문화유산 조례에는 지자체 주도로 되어있지만 기존 문화재 제도에 준하는 진행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민이 주된 주체가 되는 미래유산제도와는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어 향후 보완 필요
- 주민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유산과 시기적으로 근현대 유산까지 포함하여 그 인정 범위와 시대 범위를 확장 필요(예, 미래 유산으로서의 춘천 닭갈비)
- 문화유산의 개념 확장, 문화유산에 담긴 보존 가치와 활용 가치를 중시하는 인식 변화도 뚜렷.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가치에 대한 발굴과 함께 미래 활용 방안 해법 모색 요구.
- 타 지자체 운영 미래유산제도의 경우 안정적 제도 정착이 미흡한 한계가 있어 제도 도입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는 춘천시 실정에 맞는 내용 구축이 필요. 시민과 공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정체성 확립과 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지속적 확산 필요.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지역정체성 발굴

- 춘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역정체성을 발굴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찾아내야 함
- 밭치리 장승제의 경우 <전치곡>이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장승, 장승숲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승 요소를 지니고 있어 그 가치가 높음

복합문화유산 발굴

-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함께 다루고 기억과 장소가 결합된 복합유산을 발굴하면 지역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음
- 물로리 한천자 제사 및 기우제는 복합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큼. 한천자 무덤과 신목, 제당 돌탑 등의 유형문화유산과 산신제, 거리제, 기우제 등 다양한 제의가 함께 이루어져있음.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전승 주체 지원 방안 필요

- 전승 주체가 안정적으로 전승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 필요.
- 의병주의 경우 전승 의미가 남다르지만 전승 주체가 모두 고령이라 지속적 계승이 어려운 형편
- 겨리농경문화는 효율적 전통지식으로 그 중요성이 있지만 전승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활용

춘천시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구상

-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로드맵을 구상하여 긴 안목에서 접근해야 함

지구지정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 마을 또는 지구와 같이 공유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곳을 묶어 관리하는 방안 모색과 필요.
- "가정리 의병마을 무형문화유산 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의병의 본산지로 고흥류씨 가문의 가양주인 "의병주 " 와 함께 재궁동 산제, 재궁동 거북놀이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보유
- 역사문화정비권과 연계 방안 모색 필요

마을신앙기록화 사업과 마을 신앙백서 제작

- 마을신앙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잘 반영한 사회 의식으로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춘천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신앙백서 제작시.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 용이

지역화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 지역화 교재 개발

-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체계적 기록화를 한 후 지역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
- 춘천학연구소와 춘천시청, 춘천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지역화 교재 개발. 2023년에는 춘천닭갈비를 주제로 유아 지역화 교재 개발. 이 교재는 이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함.